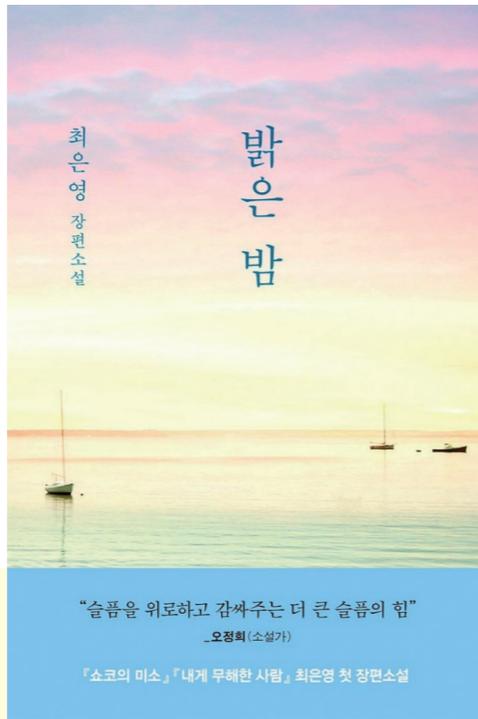


누구도 외롭지 않도록



최은영 『밝은 밤』

한 사람의 삶을 한계 없이 담을 수 있는 레코드를 만들면 어떨까.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릴 때의 웅얼이 소리, 유치의 감촉, 처음 느낀 분노, 좋아하는 것들의 목록과 꿈과 악몽, 사랑, 나이듦과 죽기 직전의 순간까지 모든 것을 담은 레코드가 있다면 어떨까.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의 삶의 모든 순간을 오감을 다 동원해 기록할 수 있고 무수한 생각과 감정을 모두 담을 수 있는 레코드가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의 삶의 크기와 같을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비가시권의 우주가 얼마나 큰지, 어떤 모습일지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한 사람의 삶 안에도 측량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할 테니까. 나는 할머니를 만나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 사실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었다.

— 『밝은 밤』

WRITER



안보운 소설가
『어떤 진심』 제68회 현대문학상 수상

내 할머니는 목소리가 크고 고집이 센 사람이었다. 대화보다는 호통에 익숙한 할머니를 나는 줄곧 무서워했다. 명절에 간장 심부름을 다녀오다가 대문 앞에 쪼그려 앉아 온 적도 있다. 거스름돈 계산을 틀렸을까봐 겁이 나서였다. 할머니는 손주들을 자주 혼냈다. 상 위에 손가락을 얹어 놓았다든가 식사 시간에 화장실에 갔다든가 소파에 누워 빈둥거렸다든가 하는 게 이유였다. 손톱을 물어뜯거나 다리를 떨면 호되게 등짝을 맞았다. 할머니가 어른, 아이 구분 없이 모두를 공평하게 혼내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건 단연코 식사 시간이었다. 할머니는 매 끼 압박밥술 가득 밥을 하는 사람이었다. 갈비 찜은 거대한 곰솔에, 식혜는 어린아이 키만 한 항아리에, 잡채는 배춧속 버무리는 고무 대야에 했으니 정말이지 손이 컸다. 새해에는 주먹만 한 만두를 몇백 개씩 빚어 온종일 찜다. 김치통에 그득 재운 LA갈비는 아무리 구워도 바닥이 나질 않았다. 할머니는 그것들을 한 상에 펼쳐놓고 먹으라고, 전부 다 먹으라고 모두를 재촉하곤 했다. 국그릇 가득 고기 뼈가 쌓이지 않으면 화를 냈다.

나는 고무줄 모양대로 자국이 난 배와 옆구리를 굵으며 먹고 또 먹었다.(할머니는 집에 온 가족들에게 고무줄 바지를 내주며 옷부터 갈아입도록 시키곤 했다.) 할머니에게 등짝을 맞을 때마다 억울한 마음이 솟았다. 동화나 소설에 나오는 할머니들은 인자하고 상냥하던데, 영화에

나오는 할머니들은 현명하고 우아하던데. 왜 내 할머니만 무뚝뚝하고 사납고 음식에 집착하는 욕심쟁이인 걸까. “할머니가 가난하게 살아서 그래. 너무 못 먹고 살아서.” 엄마가 고기 산적을 입에 밀어 넣으며 투덜대는 나를 달랬다. 할머니는 열여덟 살에 결혼해 우리 엄마를 1950년 4월에 낳았다. 나는 이제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안다. 길고 혹독한 밤을 견뎌낸 할머니에게 음식이 어떤 의미였는지 또한 안다.

최은영의 『밝은 밤』은 화자의 할머니가 들려주는 무수한 이야기들로 이루어져 있다. 삼십 대 여성인 지연은 조그마한 시골 마을 ‘희령’으로 막 귀경한 참이다. 남편과 이혼한 뒤 사람들의 시선과 편견에 잔뜩 위축된 지연은 무기력하고 우울하다. 어릴 적 지냈던 시골로 돌아왔지만 지연에게 남은 건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한 채 홀로 남겨졌다는 외로움뿐이다. 불면이 지속되는 어려운 밤 속을 지연은 끝없이 떠돈다. 우연히 외할머니와 마주치게 되면서 지연의 밤은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한다. 엄마와의 불화로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할머니지만 그녀는 지연에게 어떤 것도 따져 묻지 않는다. 지친 열굴의 지연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밥을 차려주는 게 전부다. 지연이 마주한 할머니는 부지런히 매일을 살아내고 있다.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을 정성껏 돌보면서 말이다. 지연은 할머니의 지나온 시간들에 대해 계속 묻는다. 아주 오래전 시작된 할머니의 삶은 일제강점기와 한국

전쟁을 관통해온 끔찍한 형태로, 어느 순간은 오로지 죽지 않기 위한 여정에 가깝다. 인간이 인간을 배신하고 죽이는, 도움을 요청하는 인간을 가차 없이 내쳐야 가까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를 할머니는 살아왔다. 그럼에도 지연은 할머니의 이야기가 궁금하다. 이야기 속에 늘 새비 아주머니가 등장하기 때문이다. 똑같은 역경 속에 놓여있지만 환하고 다정한 마음을 가진 새비가, 척박한 삶에 끊임없이 온기를 더해주는 새비 아주머니가 늘 할머니 곁에 서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살았어요, 할머니? 그런 일을 겪고 어떻게 살 수 있었어요?” 지연의 질문에 할머니는 대답한다. “언젠가 이 일이 아무것도 아닌 날이 올 거야. 믿기지 않겠지만…… 정말 그럴 거야.” 정말 그럴 것이다. 고난의 시간을 기어코 이겨낸 사람이 바로 할머니니까.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안온한 미래에 가닿을 수 있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사람 또한 할머니 자신 이니까 말이다. 그뿐인가. 할머니는 지독한 여정 속에서도 온전히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귀애할 줄 아는 새비 아주머니를 찾아냈다. 그러니 할머니는 온 생을 통해 지연에게 살아내는 법을 알려주고 있는 셈이다. 고난의 순간이 지나면 지연 역시 단단해질 거라고, 삶이란 어두운 밤에 지지 않을 만큼 무수한 겹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문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